

국힘, 내달 9일 최고위원 선출...경선 대신 추대 목소리도

김도읍 위원장 선관위 첫 회의
26일 공고 29~30일 후보 등록
사전질문 도입 '가상 자산' 검증
호남 이용호·PK 정점식 등 거론

국민의힘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략기획부총장인 박성민 의원을 간사로 하고 배현진 의원 등 5인을 위원으로 한 '최고위원 보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다.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내달 9일에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오는 26일 등록 공고를 한 뒤 29~30일 이틀간 출마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의혹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거론, "당 지도부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담아 입후보자들에게 사전 질문서를 당 지도부 선거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며 "재산 형성을 묻는 항목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위원장도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특히 공직선거 자격심사에 있어서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4천만원으로, 자격심사 탈락 시 전액 반환하고,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 시 50%를 돌려준다. 자격심사는 오는 30~31일 진행하고, 컷오프는 후보가 5명을 넘으면 실시한다. 앞서 태 전 최고위원은 잇따른 설화와 논란을 일

으킨 끝에 중앙당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징계 발표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당헌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내달 9일까지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과 서울 서초동이 지역구인 박성중 의원, TK(대구·경북) 출신 김정재 이만희 의원,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조선 의원 중에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용 의원 이름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선뜻 출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난국에 처한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나설 생각은 없다. 박찬 자리이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 생각도 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TK 출신보다 수도권·충청·호남 인사가 후임으로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인사 중에서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도부는 출마 의향이 있는 후보들 간에 물밑에서 자연스러운 '교동정리'가 이뤄져서 경선 없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최고위원 공석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설화'로 물의를 빚은 최고위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도.

지도부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미리 누가 나와라, 나오지 말라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군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복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ju.co.kr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김남국 따라 코인투기"... 이재명 "金·측근이 더 많을 것"

국힘·민주 '김남국 탈당' 절전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놓고 서로를 겨냥한 절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가리켜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돼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지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의

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혹시 이 대표 자신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 궁금하다"고 꼬아 붙였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제차 걸고 넘어지는 동시에, 김 의원이 이 대표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기

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다.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제한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으로 국회의원 대상 '코인 보유 전수조사' 주장이 분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실시하자는 기류를 내비치는 데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2.2%p 올라 36.8%...3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국힘 36%·민주 4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6.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민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 말부터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낮아진 60.8%였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9.9%p ↑), 부산·울산·경남(4.2%p ↑), 인천·경기(3.1%p ↑), 남성

(4.6%p ↑), 30대(6.0%p ↑), 50대(4.3%p ↑), 무당층(6.2%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1%p ↑), 대구·경북(2.7%p ↑), 60대(3.2%p ↑), 정의당 지지층(4.0%p ↑)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3%, 더불어민주당이 47.0%로 집계됐다.

전주에 비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4%p, 1.5%p 각각 상승했다. 정의당은 0.1%p 내린 3.2%로 조사됐고, 무당층 비율은 1.7%p 하락한 12.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야, 24일 운영위 개최 잠정 합의... '尹 외교' 놓고 공방 예상

지난해 11월 이후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대상 첫 업무보고·현안 질의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운영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수석 전원이, 국가안보실에

서는 조태웅 실장과 김태호 1차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11월 8~9일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선출된 뒤 처음 열리는 운영위 회의이기도 하다.

여야는 운영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공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야는 두 정상회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운영위 회의 직전인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회담 결과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과 '주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방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놓고서도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가전산업 이·전직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및 전문교육강사 모집 공고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2023년도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전산업 이·전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교육생 모집 마감시
- 신청대상 실직자 및 구직자 60명, 현장교육 참여기업 대상 10명
- 교육기간 4월~9월 (과정별 20일 또는 25일 교육, 1개 과정 택일)
- 교육과정

교육 과정	공통과정	채용약정형 기업 현장직무교육
캐드를 이용한 모델링 과정(120시간)	기업 맞춤 이력서 작성	기본소양+이론교육(40시간) 맞춤형 직무교육(40시간)
AIOT가전 및 스마트홈 과정(90시간)	면접 방법 및 노하우	· 기업 맞춤 이력서 작성
전기가능 및 설비시공 과정(90시간)	산업안전 외 법정교육	· 면접 방법 및 노하우
스마트생산품질관리 전문기양성(90시간)	기업유대관계 향상 등 (30시간)	· 산업안전 외 법정교육
		· 기업유대관계 향상 등

- 교육생 혜택
 - 교육비 전액 무료(교재포함)
 - 교육 훈련 수당 최대 110만원 지급
 - 타지원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 직무교육 및 수료증 발급
 - 수료자에 대해 우수기업 구직 매칭 적극 지원

전문교육강사 모집

- ① 해당분야 대학 및 기관/단체등 해당분야 교육전문가
- ② 국가가전산업 분야 대학, 연구기관/단체, 기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육 전문가
- ③ 해당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로서 NCS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사업등에 참여위원 등 교육 관련 전문가
- ④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전문가



한국광산업진흥회 서류다운로드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